

제목: "큰 용사 입다"

말씀: 사사기 11장 1-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입다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입다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입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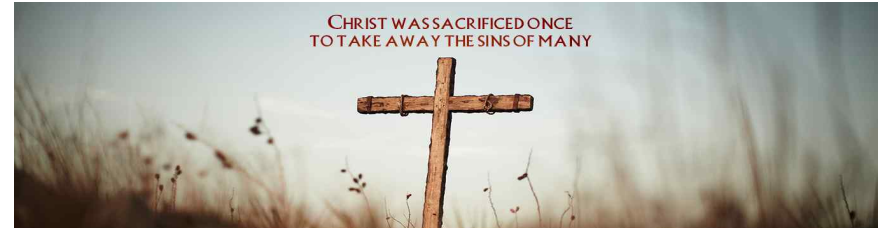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 1) 입다는 _____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1-2절)
- 2) 입다는 하나님을 _____한 사람입니다. (11절)
- 3) 입다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_____가 있었습니다. (7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사기 11장 1-11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udges 11: 1-11 구약 380 페이지 Presider
- 말씀 "큰 용사 입다"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Mighty Warrior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광복절)

이민 오기 전 한국에 있었을 때 일 년 중 크게 기념 하던 날 중에 하나가 광복절이었다. 일본에 의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나라에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 와서도 한동안 교회에서 주일예배 중이나 후에 광복절 주일에 애국가를 항상 불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해방의 자유를 기억하곤 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나 개인에게 해방의 자유가 얼마나 큰 감격으로 기억되고 있었겠는가? 나는 그 시절을 당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겪지 않았으며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겪었던 보릿고개도 알지 못하는 세대다. 하지만 광복절이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념했던 것이다. 내가 그러니 나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세대는 어떠한 감정일까? 생각해 본다. 더 나가서 미국으로 이민 온 나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별로 큰 감정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듣고 혀를 찬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 하신 일들을 어지간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가? 그 당시 교과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학교가 운영되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직 가정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했다. 어지간한 믿음과 열정이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의 가정을 기억한다. 그는 작정을 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믿음의 공식은 똑같다. 교회가 교육을 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생활로의 믿음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크게 잔치한다고 다음 세대가 광복절을 중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생활하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가 아니라 해방을 맞은 이전 세대의 체험 가운데 변화된 인생을 나눌 때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라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증거 외에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다.

한 나라의 되찾은 자유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욱 기쁜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것이 광복의 참 기쁨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역사를 돌아보아도 선교사님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꽃을 낸 결과의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8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8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